

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

미래 치안 대응 인재 양성...수용 인원 연 5000명·18만㎡ 규모 KTX·고속도로 접근성 등 최적 입지 후보 10월 후보지 확정

남원시가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이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전력투구 중이다.

남원시는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가칭) 설립 대상부지 공모'에 참여했다며 최적의 부지를 물색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용인원 연 5000명, 건축 연면적 18만㎡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고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이에 시는 국·공유지이면서 166만㎡의 면적에 달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찾아 응모했다.

영호남 교통의 요충지인 남원은 전라선KTX 및 SRT와 연결돼 있고 고속도로(광주-대구, 순천-완주) 접근성이 좋고 오는 2030년 '달빛철도'까지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과 영·호남권의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 후보지는 우수한 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정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연수·교육·관

광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찰청이 요구하는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세계적인 신입경찰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실습기관이 들어서기에 효과적인 입지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천혜의 자연·교육환경을 갖춘 남원시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며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협력해 반드시 남원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9월 중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를 선정해 현장방문 후 10월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대학생 170명에 장학금 3억6천만원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재를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민장학재단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재로 선발된 17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재단은 이번 수여식을 통해 4년제 대학생 139명

에게 각 220만원, 전문대생 31명에 각 1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총 3억 6160만원을 지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장학금을 받는 모든 학생이 시민들의 기대와 인재 양성을 위한 염원을 기억하고 학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왕버들나무숲·비격진천퇴' 국가유산 추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하천 독을 따라 있는 늘어서 있는 수령 200년 이상의 왕버들나무들.



지난 2018년 무장읍성 궁기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비격진천퇴. <고창군 제공>

하고리 왕버들나무숲, 수령 200년 '비격진천퇴' 조선 최초 시한폭탄 마을 경관·학술 가치 높은 평가

고창군이 하고리 '왕버들나무숲'과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퇴'의 국가지정 유산 승격을 위한 유역추진을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하고리 왕버들나무숲은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하천 독을 따라 있는 숲으로 수령 200년 이상의 왕버들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수종이 생육하고 있다.

마을 앞을 흐르는 대산천에 대한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수해방지림과 비보림으로서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 이르는 마을숲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전라도무장현에도 표기가 돼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와 인문사회적 의미가 있다.

지난 2018년 무장읍성 궁기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비격진천퇴는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며 살상력이 높아 임진왜란때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출토된 비격진천퇴는 뚜껑까지 있는 완형 1점이 발굴돼 비격진천퇴의 구성원리를 알 수 있게 한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고리 왕버들나무숲은 지난 2002년 도 지정문화유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고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퇴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군은 하고리 왕버들나무숲과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퇴의 학술자료를 종합해 천연기념물과 보물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자료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문화유산의 격을 높이고 안전하게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군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오고 싶은 지역의 친근한 문화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배롱나무·마가목 원료 화장품 연구

바이오산업연구원·한미양행, 2028년까지...국비 30억 투입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은 한미양행과 함께 배롱나무와 마가목에서 화장품 원료를 추출하는 연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과제로 선정돼 지원받는 국비 등 30억원이 투입돼 2028년까지 진행된다.

배롱나무와 마가목은 남원 지리산 자락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로, 예로부터 약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이들 나무에서 나온 추출물이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 대상에 선정됐다.

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한미양행은 임상시험을 통해 추출물의 효능을 입증하고 이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배롱나무와 마가목 추출물은 고기능성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보상금 드려요"

고창군, 7월까지 폐비닐 4606t·폐농약 용기류 55t 수거

고창군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 수거보상금을 지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창군은 수거보상금을 통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수거를 활성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 폐기물 처리를 돕고 소각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폐비닐 1kg당 A등급 140원, B등급 120원, C등급 100원이며 농약 플라스틱병은 1개당 100원, 농약봉지는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를 한국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 인계하거나 직접 한국환경공단 정읍수거사업소로 운반하면 받을 수 있다.

앞서 올해 군은 7월말 기준 농촌 폐비닐 4606t과 폐농약 용기류 55t을 수거했다.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수거량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투기를 방지하고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농민과 농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